■ 민족문화연구 제79호(2018.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47-78.

【특집: 한국 근대 문예와 공간】

해방 공간의 재편과 접경/연대의 상상력*
—이광수의 『서울』을 중심으로—

오태영**

목 차

1. 해방 전/후의 공간 재편과 이동의 수행성
2. 남한사회의 미국화와 문화 접경지대의 창출
3. 동아시아 연대 공간의 모색과 환대의 감각
4. 민족성 회복의 욕망과 중첩되는 공간들

국문초록

해방 이후 조선/남한사회의 공간은 체제 변동 과정에 조응해 이동하는 주체의 수행적 과정을 통해 재편되었다. 이광수의 『서울』은 1945년 해방에서 1948년 단독정부 수립을 거쳐 남북한 분단 체제가 성립되어가는 가운데 탈식민화와 미국화의 사회 구조 변동 과정에 조응해 재편된 남한사회의 축도로서 서울이라는 공간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곳은 과거 식민의 체험과 기억을 극복하기 위한 탈식민화의 기획

* 이 글은 2018년 1월 31일 동국대학교 서사문화연구소 주최 콜로키움 〈해방 공간의 재편과 이동하는 주체들〉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성균관대학교 이종호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동국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 '동국GRANT사업(신진연구)'의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S-2017-G0001-00023).

**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과 실천들이 수행되는 공간이다. 또한, 미군정 체제하 미국식 자본주의의 침투에 의한 소비문화가 유행하는 곳으로서, 개인의 욕망이 발현되고 사회적 향락이 만연한 공간이다. 그리하여 정치경제적 혼돈과 이질적인 문화들이 잡거하고 있었던 남한사회의 공간 질서를 재구축하기 위한 주체들의 이동이 다채롭게 분기하고 있었다. 특히 단독정부 수립 및 48년 체제가 구축되어가던 시점에서 정치적 이념보다는 자본주의적 질서에 기초해 자신의 삶을 영위하던 청년 세대들은 소비와 향락을 탐닉하는 데 여념이 없었지만, 상실되거나 훼손된 민족성 회복의 욕망과 함께 민족 해방을 위한 동아시아 연대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그를 위해 사랑의 이념을 제시하면서 환대의 윤리를 설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해방과 분단, 전쟁과 전후로 연쇄하는 체제 변동 과정 속에서 남한사회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공간들은 민족적 공간으로 회수되어 통합되었지만, 거기에는 그와 다른 분열증적이고 모순적인 공간(상상력)이 팰럼시스트 위의 글자들처럼 그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주제어: 해방, 군정, 분단, 단독정부, 민족국가, 체제, 공간, 이동, 접경지대, 연대, 탈식민화, 미국화.

1. 해방 전/후의 공간 재편과 이동의 수행성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라는 사건은 제국-식민지 체제에서 탈식민-냉전 체제로의 전환을 낳았다. 그에 따라 기존 식민지 조선인들의 삶의 조건들은 해방 조선의 체제(regime) 변동에 조응해 재편되어야 했다. 특히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하 제국 일본의 충직한 신민(臣民)으로서 위상을 부여받았던 조선인들은 해방 이후 민족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재정립해야만 했다. 식민의 체험과 기억은 해방 직후부터 전개된 탈식민화의 움직임 속에서 극복되어야 했고, 새롭게 도래할 민족국가에 대한 염원 속에서 민족성을 자각하고 민족문화를 창달하는 것을 통해 민족의 일원으로 거듭나야만 했던 것이다. 이처럼 해방 전/후는 해방이라는 사건을 임계점으로 분기하고, 체제의 전환을 통해 단절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사건으로서의 해방이 이전과 이후의 단절을 낳고, 개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체제의 질서와 문법에 의해 삶을 영위하게 했다고 해서 해방 이후가 해방 이전과 완전히 절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해방이 곧 독립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미소군정 체제하 조선인들의 삶의 조건들은 여전히 제국-식민지 체제하의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해방을 통한 단절의 감각은 탈식민화의 욕망과 민족국가 건설의 기치 속에서 강화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제국-식민지 체제의 질서와 문법이 지속되어 조선인들의 행위와 욕망을 추동하고, 사회 구조를 재생산한다면, 식민화된 상태는 고착화될 뿐이었다. 탈식민화의 욕망은 과거 식민지시기를 민족 수난사의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한편, 식민권력에 대한 저항의 편린들을 통합하게 했다. 제국-식민지 체제기 개인적·집합적 행위들은 대체로 상실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으로 내러티브화되었고,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핵심에 '민족성'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때 민족성은 단일민족 신화에 기대어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그 자체로 어떤 고유성을 갖는 것으로 의미 부여되었고, 개인과 사회, 민족과 국가 사이의 강력한 유대감과 결속력을 창출하는 구심력으로 작동하였다. 해서 해방 직후부터 민족국가 건설에 관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목소리들이 분출되었고, 그것은 이념과 노선, 정치적 비전과 전망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체로 민족 로망스의 자장으로부터 결코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한편, 해방이라는 사건은 공간 단위에서도 그 이전과 이후를 분절한다. 식민지/탈식민지, 민족 수난의 현장/민족적 열기의 해방 공간, 억압과 통치의 공간/해방과 자유의 공간 등 이분법적 공간 위계화 속에서 식민지 조선과 해방 조선은 전적으로 다른 공간 질서와 문법에 의해 구축되고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는 체제의 변동이 공간성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하 전쟁 수행을 위해 전장(戰場)과 후방(後方)으로 연쇄한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에 통합되었던 식민지 조선은 해방 이후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성이 충만한 공간으로 재편되었다. 하지만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하 식민지 조선의 공간 재편의 논리와 문법은 해방 이후 미소군정 체제를 거쳐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분단 체제가 성립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른바 전쟁 수행을 위한 동원의 공간화(또는 공간의 동원화)는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과정 속에서도 변형되어 유지·존속되고 있었던 셈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든, 해방 조선의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 체제이든, 근대 국민국가의 조직 원리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국가 주권, 영토적 완결성, 국가 공동체라는 원칙[1]에 의해 식민지 조선과 해방 조선의 공간성이 구축되고 있었다. 특히 영토적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해방 전/후 조선은 균질적이고 통합된 공간으로 위치 지어져야만 했다. 제국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 병참기지로 위치 지어진 식민지 조선이나 해방 이후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한민족의 영토로 거듭났던 해방 조선은 그 자체로 내적 구심력을 갖는 통합된 공간 질서를 구축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 질서는 대체로 체제의 실정성(positivity)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즉, 균질적이고 완결성을 지닌 통합된 공간과 '다른 공간들'은 체제의 실정성을 위협하거나 그것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거부되거나 부인되었다. 따라서 근대 국민국가의 조직 원리에 기초한 해방 전/후의 조선, 특히 영토적 완결성에 의해 구축된 식민지 조선 및 해방 조선('한반도')과 '다른 공간들'은 삭제되거나 은폐되었다. 하지만 이 '다른 공간들'은 엄연히 존재했다.

식민 통치 권력이나 해방 조선 건국의 열망이 강력한 공간 구심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지만, 언제나 비균질적이고 분열된 공간들은 상존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간 재편의 결과가 아닌 그 과정에 눈을 돌려야 한다. "공간은 그 자체로는 절대적이지도, 상대적이지도, 관계적이지도 않지만, 상황에 따라 그중 하나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모두가 되기도 한다. 공간을 적절하게 개념화하는 문제는 인간의 실천을 통해 해결된다. (…) '공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따라서 '어떻게 상이한 인간 실천이 공간의 상이한 개념을 창출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대체된다."[2] 비균질적이고 분열된 공간들은 공간적 실천 행위의 주체들의 수행적

1) John Agnew, *Geopolitics: Re-visioning world politics*, Routledge, 2003, pp.15-83.
2) David Harvey, *Social Justice and the City*,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09(Revised Edition), pp.13-14.

과정을 통해 비로소 공간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 중 하나로서 해방 이후 민족적 공간이 창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해방 조선을 민족국가 건설의 장으로 균질화하여 통합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를 위해 동일한 논리에 의해 식민지 조선을 억압과 착취, 통제와 차별의 수난의 장으로 명명하는 것은 '유토피아'에 대한 욕망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은 대체로 탈식민화 움직임 속에서, 이후 민족국가 건설과 전개 과정 속에서, 민족 로망스에 의해 사후적으로 만들어지고 강화되었다. 해방 이후 조선(또는 한반도)을 영토적 완결성을 지닌 공간으로 통합한 것은 해방 직후부터 다양하고 이질적인 공간적 실천 행위를 수행했던 주체들의 움직임과 그로 인해 새롭게 창출된 공간들의 의미를 오직 민족국가의 경계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욕망, 그것도 전 세계적인 냉전 질서와 남북한 분단 체제하 반공국가로서 자신의 위상을 끊임없이 강화해온 남한사회의 사후적 욕망이 개입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단일민족 신화와 순혈주의에 기초한 민족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라고 여겨진 해방기 조선인들의 분열증적인 공간적 실천 행위와 그로 인한 이질적 공간 창출은 애써 무시되거나 은폐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해방 조선은 적어도 공간 단위에서는 "양립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여러 공간을 실제의 한 장소에 겹쳐놓는 데 그 원리가 있"[3]는 '헤테로토피아'에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식민과 해방, 군정과 자유, 친탁과 반탁, 단정과 통일, 전쟁과 분단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펼쳐진 공간적 사유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해방 이후 조선을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균질적으로 통합된 '해방 공간'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관점[4]에 거리를 두는 한편, 다양하고 이질적인 공간들이 경합했던 장으로 전제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3) 미셸 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18-19면.

4) 대표적으로 김윤식의 '해방 공간'이라는 명명법을 들 수 있다. 그는 해방 공간은 열려 있는 공간이라면서 그것이 나라 만들기의 과정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미소 양극 체제가 해방 공간의 폭, 범위, 궤도를 결정하는 '최종적 결정인'이라면서도 그와 무관한 '지배적 원인'에 의해 민족 문학론이 배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그는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 기초해 해방 공간의 의미를 균질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김윤식, 「서문」,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서울대 출판부, 2006 참고.

물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인 냉전 체제와 동아시아 지역 질서 재편에 따른 해방 조선의 위상 변동에 관한 연구,[5] 분단 체제 성립을 전후로 38선 표상과 월경의 상상력에 관한 연구,[6] 국민으로 포섭될 수 없는 자들을 통해 영토적 완결성을 구축하지 못한 해방 조선에 관한 연구[7]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해방 조선을 둘러싼 공간 질서의 재편과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공간 지식의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등 괄목할 만한 논의를 개진했지만, 이동하는 주체의 수행적 과정 그 자체에는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다. 즉, 해방 조선의 사회적 공간이 체제 변동 과정에 따라 어떻게 재편되었는가에 주목한 결과 공간성을 재구축한 주체의 이동의 과정이 갖는 의미와, 그러한 이동의 수행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등한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해방 조선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공간들이 경합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공간적 실천 행위를 수행한 주체들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점, 다시 말해 해방 조선을 살아가고 있었던 주체들의 공간적 실천 행위의 수행적 과정을 통해서만 공간들이 비로소 공간성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공간의 사회적·문화적 의미가 그 공간을 인식하거나 감각하거나 소유하거나 이동한 신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면, 공간성은 주체의 수행적 과정의 결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때 수행적 과정은 대체로 '이동'의 형식을 갖는다. "이동은

---

5) 김예림,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반공 정체성의 위상학—해방-한국전쟁 후(1945-1955) 아시아 심상지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20집, 상허학회, 2007, 311-345면; 장세진, 「해방기 공간 상상력의 전이와 '태평양'의 문화정치학」, 『상허학보』 제26집, 상허학회, 2009, 103-149면; 오태영, 「탈식민-냉전 체제 형성기 지정학적 세계 인식과 조선의 정위—표해운의 『조선지정학개관』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1집,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129-158면.

6) 정종현, 「탈식민지 시기(1945-1950) 삼팔선 표상의 지정학적 상상력—해방 후 이태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39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423-460면; 신지연, 「해방기 시에 기입된 횡단의 흔적들」,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2집, 한국근대문학회, 2015, 311-329면.

7) 김예림,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해방기 귀환의 지정학과 귀환자의 정치성」, 『상허학보』 제29집, 상허학회, 2010, 333-376면; 정주아, 「두 개의 국경과 이동(displacement)의 딜레마: 선우휘를 통해 본 월남(越南) 작가의 반공주의」,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7집, 한국현대문학회, 2015, 247-281면.

자아를 넘어 세계를 자각하고 경험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이동은 세계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방식이며, 세계가 '감정'의 대상이 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모빌리티는 유의미한 방식으로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이다. 세계에 대한 앎의 많은 부분이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대상을 통해 형성된다."[8] 따라서 소여로서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공간(성) 또한 기실 개인적·집합적 실천 행위의 결과로서 사회적·문화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이 '수행적 공간'이다.

수행적 공간에 관심을 두는 이 글에서는 해방 조선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동하는 주체들의 수행적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서사는 인간의 이동을 사건으로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완결된 서사 형식을 통해 그러한 인간의 이동에 어떤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한다. 또한, 서사는 정책과 제도, 권력과 담론이 공간을 균질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서사화하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저항할 수 있는 문학적 상상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문학이라는 장치는 문학 이외의 장치들과 마찬가지로 체제의 실정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자아내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이광수의 『서울』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9] 이광수는 1949년 2월 7일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다가 3월 4일 병보석으로 출옥한 뒤 8월 29일 불기소 처분되었다. 김윤식에 의하면, 그는 반민특위 기소 중 「사랑의 동명왕」을 집필하였지만 그것은 '오락형 야담'에 지나지 않았고, 『서울』을 연재하는 것을 통해 "세상에다 자기의 새로운 모습과 의미와 사명감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하였다."[10] 즉, 식민지 말 체제 협력적인 행적으로 인해 단독정부 수립 이후 반민특위에 회부되어 조사를

8) 존 어리, 강현수·이희상 역, 『모빌리티』, 아카넷, 2014, 124면.
9) 이광수의 『서울』은 1949년 2월 25일 창간된 좌익적 색채의 『태양신문』 1950년 1월부터 연재되었던 신문연재 장편소설이었는데, 소설 속 청년들이 공산청년동맹의 지하조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라며 공보처의 연재 중단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박정규, 「태양신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태양신문&ridx=0&tot=513(2018.5.13 검색) 참고.
10)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솔출판사, 1999, 463면.

받았고, 기소가 중지된 뒤 다시금 문학적 활동을 재기하려고 한 것이 『서울』의 연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윤식은 연재가 중단되지 않았으면, 민족주의자로서 이광수가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서사가 『서울』에 전개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해방과 단정 수립 등 체제의 변동에 따른 이광수의 문학 활동이 어떻게 자기 재정립의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체제 변동에 따른 공간 재편과 이동하는 주체들에 의해 창출된 남한(=서울)의 공간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광수의 『서울』 이외의 문학작품—범위를 좁혀 『서울』과 같은 신문연재 장편소설들—을 통해서도 체제 변동에 따른 남한사회의 공간 재편과 새롭게 창출되는 공간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1945년에서 1946년까지 『자유신문』에 연재되었던 김남천의 『1945년 8·15』에서 조선공산당의 정치적 비전과 전망을 체화한 청년의 이동을 통해 좌파 이념 공간의 창출을 살펴볼 수 있고, 1948년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을 전후로 한 시기에 『자유신문』에 연재된 염상섭의 『효풍』을 통해 좌우익의 정치적 이념보다는 미국식 자본주의적 질서 아래 재편되어가고 있는 남한사회의 혼종적 공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49년에서 1950년 초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김동리의 『해방』을 통해 48년 체제 성립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우파 민족주의의 이념 공간으로 협애화되어가고 있는 남한사회의 공간 질서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광수의 『서울』의 서사는 이상의 작품들에 나타난 해방 이후 남한사회의 체제 변동 과정 속에서 재편된 공간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민족적 공간 창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결코 그곳에 통합되거나 균질화될 수 없는 다른 공간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그간 연구에서 거의 주목 받지 못한 이광수의 『서울』은 해방 이후 민족국가 건설의 기치 속에서 남한사회가 민족적 공간으로 통합되고 균질화된 과정에 어떠한 '다른' 공간적 실천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살펴보는 데 적합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2. 남한사회의 미국화와 문화 접경지대의 창출

이광수의 『서울』의 서사는 1949년 12월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모인 청년들의 첫 번째 회동으로 시작된다. 이 크리스마스 파티는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청년 세대들의 사교 모임이었는데, 그것은 해방 이후 서양문화, 특히 미국문화의 남한사회로의 전파에 따른 새로운 청년문화의 한 형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었다. 『서울』의 서술자는 크리스마스가 아직 한국인의 민족적 명절이 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교인과 댄스나 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이나 향락의 핑계라면 아무 것도 놓치지 아니하려는 신식 부자 계급의 것에 지나지 못하였다."[11]라고 일갈하고 있다. 해방 이후 크리스마스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거나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종교적 기념일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서울』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문화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보인다. 즉, 크리스마스 파티를 서구 추수의 무비판적인 청년 세대들이 향락에 도취된 상태를 나타내는 기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남녀 간의 '댄스'가 이와 같은 미국식 문화에 무자각적으로 도취된 상태를 상징한다. 당시 청년들에게 댄스는 선진국의 서양인들이라면 모두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어떤 문화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었고, 그런 만큼 해방 이후 청년 세대들의 소비문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기호가 되었기 때문이었다.[12]

---

11) 李光洙, 「서울」, 『李光洙全集 第十九卷』, 三中堂, 1963, 112면.

12) 이와 관련해 염상섭의 『효풍』에 그려진 댄스홀 '스왈로'의 풍경을 참고할 수 있다. "베커는 머리를 받을까 무서운 좁다란 안문을 밀치고 들어서서 양장에 조선옷에 가지각색으로 꾸민 댄서들 틈에 양복 입은 '꼬맹이'들이 끼어서 서고 앉고 부산히들 서성거리는 품이 댄스 홀이라기보다도 명동거리에서 늘 보는 따이야징 장거리 같다고 발을 들여놓기가 싫은 생각이 들었다. (…) //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이런 자리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하얀 소복한 여자와 웃통을 벌겋게 내놓은 반나체(半裸體)의 양장미인(?)이다. 살빛이 희지도 못한 시뻘건 어깨집이 떡 벌어진 것을 건너다보며 베커는 니그로!를 생각하였다." 염상섭, 『효풍』, 실천문학사, 1998, 107면. 이후 미국인 청년 베커가 조선 남녀는 누구나 댄스를 할 줄 아냐고 묻자, 취송정의 여주인 가네코는 "이런 데 다니는 청년은 모던이랍니다. 인텔리층이죠. 여자는 나 같은 난봉꾼이구요"라고 답한다. 같은 책, 108면. 이를 통해 당시 댄스가 청년 세대들에게 하나의 문화로 유행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에서 박인순은 이규원, 이음전 남매와 함께 김수선의 집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향한다. 갓 대학에 입학한 박인순은 늦은 저녁시간에 젊은 남녀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 모종의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새로운 방식의 청년들의 사교 모임에 은연중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이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는 김수선의 집은 그녀의 아버지인 김만식이 해방 이후 미군정 체제기를 거쳐 오면서 미카오·홍콩·일본 등과 무역을 하여 거부가 된 뒤 소유하고 있는 대저택이다. 그곳은 넓은 마당과 정원이 있고, 개인 소유의 집으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연당을 건물 주위에 두르고 있으며, 대문을 한참 지나 양옥 현관이 있고, 다시 양옥에서 더 들어가면 조선식 대문과 행랑이 늘어선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술자는 조선식과 서양식이 조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잡거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적으로 논평하고 있지만, 이 저택 내부에는 응접실이나 홀과 같이 파티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구획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 모인 청년 남녀들은 주선자인 김수선이 이끄는 대로 자신을 소개하는 한편 상대방과 교분을 쌓아 가는데 이성 간의 교제를 비롯해 서양식 파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들은 어색해한다. 다만, 그러한 어색함을 감추면서 파티를 만끽하는 것이 청년 세대로서 자신의 자유와 열정을 고양시키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그리하여 다 같이 어우러져 댄스를 춘다. 물론 이는 오락과 유흥의 성격이 강한 것이지만, 당시 청년들로 하여금 문화인으로서 자신의 교양을 드러내는 한편 기존의 사회적 제도와 관습의 굴레에 갇혀 억압되었던 자유를 분출하는 문화적 실천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그들은 첨단의 서양문화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자기를 위치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서양문화에 경도된 그들의 모습은 주빈으로 참석한 서병달에 대한 시선과 인식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파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도착한 서병달은 서양식 매너와 사교술에 능수능란한 남성으로 선망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서울서 지은 것 같지 아니한 더블 브레스트의 서 줄 있는 양복이 더욱 그를 후리후리하게 보이게 하였다. 빗질 잘한 오올백 머리와 가슴 호주머니에 삼각형의 귀를 늘인 흰 손수건이며, 여러 사람

을 향하여서는 하는 목례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악수하며 인사하는 것 등이 모두 서양적이요, 턱 자리가 잡혔다."[13] 파티에 적합한 의복과 행동, 상대방에 대한 예의 등은 기실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 침투한 스파이의 위장전술이었지만, 미국문화에 동경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들에게 서병달은 서양식 매너와 교양을 갖춘 인물로 여겨지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파티가 해방 이후 남한사회에 유행하고 있었던 청년문화의 한 형식이라고 했을 때, 파티에 참석하는 청년들이 대체로 부르주아 지식인들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파티 참석을 위해 돈을 갹출할 정도로 그들은 일정 정도 자본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체로 대학생으로서 지식인층에 속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부모의 재력에 기대어 소비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즉, 이 청년들은 부모의 자본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화자본을 획득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파티가 열리는 곳이 무역상인 김수선 아버지의 대저택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무역을 통해 거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가 미군정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파티에 참석한 박인순의 아버지 역시 미군정기 축재한 자로서 표면적으로는 예수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향락을 일삼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 그려진다. 『서울』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해방 전 가난한 교사생활을 이어오다 미군정 체제기 미국 유학생이었던 전력을 활용해 미군정과 교섭하여 졸부가 된 인물이다. 법을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상업회의소 간부직이나 명예직 등에 올랐던 그는 김수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경제권력에 기초하여 1950년 제2대 국회위원 총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이다.

『서울』의 서사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이들 해방 이후 미군정 체제를 활용해 부자가 된 자들에 대한 서술자의 입장은 명확하다. "오늘날에는 가난 주접을 벗으려면 무슨 엉큼한 짓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엉큼한 노름

13) 李光洙, 앞의 책, 116면.

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에는 무역과 협잡이었다."[14] "정직과 근면이 값이 떨어지고 협잡과 아첨이 입신 양명의 태도가 되었다."[15] 해방 직후부터 가속화된 인구의 유입 및 물자의 부족, 물가의 앙등 등 극심한 경제적 혼돈 속에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극심한 빈곤 상태에서 하루하루 연명해가기 힘겨워했던 대다수 사람들과 달리 『서울』에는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있는 상류층 사람들이 등장한다. 서술자에게 있어서 그들은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군경의 피복과 무장까지 타국의 원조를 받아 간신히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무관하게 외국산을 애용하는 등 과소비를 일삼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해방의 혼돈상태에서 미군정 체제에 기생하여 자신들의 부를 축재하는 데 여념이 없었던 브로커·협잡꾼들과 다름없는 자들로서 단정 수립 이후 자신들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자들일 뿐이었다.

미군정 체제기 무역과 협잡으로 대표되는 경제 질서의 재편과 그로 인한 남한사회의 경제적 혼돈상태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인식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의 관심사는 그러한 경제 질서를 중심으로 한 남한사회 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유입된 미국문화를 향유하는 주체로서의 청년세대의 문화적 실천이 창출한 사회적 공간에 있다. 미군정 체제 초기부터 패권국가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동맹국으로서 영향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자신의 권력을 내면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해왔고, 특히 그것이 남한사회를 살아가고 있던 개인들의 신체를 규율하기 위한 문화 미디어의 확산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16] 따라서 해방 이후 미군정 체제를 거쳐오면서 가속화된 남한사회의 미국화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해방 직후부터 미군과 소련군의 주둔·점령에 의한 한국사회로의 미국문화와 소련문화의 유입에 따른 문화변용은 충분히 짐작 가능한 것이었다. "解放을契機하야 歷史的變革期에 直面하게 되엿고 直接的으로는 美, 蘇文化의 廣面的交流가密接히 約束될것

14) 같은 책, 139면.
15) 같은 책, 151면.
16) 허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냉전시대(1945-1965) 문화적 경계의 구축과 균열의 동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8, 141-142면.



〈서울의 表情⑤: 東西文化의 交流!〉

이 豫想되는것이다 美國의 文化는 旣爲 半世紀前以來로 基督敎를通하야 우리의 宗敎文化가 昂揚될뿐아니라 一般的文化 要素가 우리固有文化에 浸透됨이만헛음을 是認하게됨이며 蘇聯文化도 大陸과의 連續的地緣과 思想的影響으로 우리文化의 內部的變容을 醞釀하고잇음도 事實"[17]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서양문화의 유입과 그에 따른 해방 조선의 문화변용은 각각이 독립된 문화적 단위로서 공존하고 있었다기보다는 그것들이 상호 침투하여 혼종적인 문화를 낳았다. 1946년 10월 11일『경향신문』실린「서울의 표정」에서 동서 문화의 교류상으로서 장죽을 물고 있는 미군과 마도로스파이프를 물고 있는 노인을 풍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문화와 서양문화의 접촉과 변용은 한국문화도 서양문화도 아닌, 그것들이 잡거한 상태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했던 것이다.

『서울』에서 서양문화로 대표되는 크리스마스 파티와 댄스를 추는 청년들의 문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청년 세대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구축하기 위해 문화적 실천 행위의 일환으로서 크리스마스 파티나 댄스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수행적 신체는 그러한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모방의 단계에 그치고 있었다. 해서 서술자는 한국의 생활이 "육체를 감추는 생활, 식욕과 색욕(지금 말로 성욕)을 감추는 생활"인데 반해 "서양 사람의 생활은 육체의 생활, 따라서 식욕과 성욕의 생활"이기 때문에 격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18] 나아가 청년 세대의 유행에 편승한 자기 욕망의 발현이 한국의 문화적 전통에 비추어 부자연스럽고 서양문화의 흉내 내기에 지나지

17)「變革期와 文化(社說)」,『동아일보』, 1945.12.24.
18) 李光洙, 앞의 책, 130면.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모방은 언제나 의도치 않게 이질적인 것을 산출하게 마련이다. 해방과 군정 체제기를 거쳐 오면서 서양문화의 최첨단이라고 여겨진 미국문화를 받아들여 유행시킨 청년들의 문화는 미국문화도 한국문화도 아닌 그것들이 혼효된 문화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공간 역시 단일하고 통합된 문화공간이 아닌 혼종적이고 이질적인 문화공간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해방 이후 체제의 변동과 경제질서의 재편은 남한사회의 이문화들 간의 접촉을 가속화시켰고, 그로 인해 문화 접경지대를 발생시켰던 것이다.

메리 루이스 프랫에 의해 고안된 개념인 '접경지대(contact zones)'는 지배와 복종, 식민주의와 노예제도 등과 같이 극도로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또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전 세계를 가로질러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이 극도로 비대칭적인 관계가 초래한 결과 속에서 이종 문화들이 만나고 부딪히고 서로 맞붙어 싸우는 사회적 공간을 의미한다.[19] 비유럽 지역을 여행한 유럽인들의 여행기를 대상으로 제국주의 권력의 확장을 다루고 있는 메리 루이스 프랫은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접경지대에 주목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20세기 후반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탈식민화의 지적 탐구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가 직접적으로, 또는 변형되어 식민지적·신(新)식민지적·비(非)식민지적 형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해방 이후 한국의 사회적 공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주목한 제국과 식민지의 접경지대는 그 형식을 달리해 해방 이후 미소군정 체제와 단정 수립을 거쳐 분단 체제가 성립되어가는 한국사회의 곳곳에서도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해방이 과거 제국적 질서와 문법에 의해 작동하고 있었던 제국-식민지 체제의 사회적 공간들을 일거에 삭제할 수 없었던 것처럼, 또한 미군과 소련군으로 대표되는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한반도 진출 및 점령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공간들이 창출되었던 것처럼, 해방 이후 한국, 특히 남한사회에는 그 크기가 다른 무수히 많은 접경지대들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

19)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Routledge, 2008(Second Edition), p.7.

물론 접경지대의 개념을 통해 해방 이후 한국의 사회적 공간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비대칭적인 이종 문화들이 경합하는 공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들을 경합하게 하는 것이 누구인가, 즉 다시 말해 언제나 그러한 이종 문화들을 '수행하는 신체들'이 중요하다. 그들이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문화적 실천 행위의 주체로서 자신들을 위치시키는가, 나아가 그들이 이종 문화들 사이에서 어떠한 이동을 보이는가가 사태의 핵심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이종 문화들 사이의 경합을 염두에 두었을 때, 그러한 이동은 헤게모니 쟁투의 과정으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특정한 사회적 공간의 내적 구심력을 구축하고 강화하여 다른 사회적 공간들을 병합해가는 과정 못지않게 주목되는 것은 하나의 문화공간에서 다른 문화공간으로의 이동이다.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단절되거나 폐쇄되어 있다고 여겼던 공간들이 접경지대에서는 틈을 노출하고 그 틈을 통해 넘나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바로 이 접경지대에서 문화 횡단이 발생하는 것이다. 해방이라는 사건이 창출한 접경지대는 그런 점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욕망이 투사되는 공간이자, 인종·민족·세대·계층·젠더 등이 자신들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가던 '열린 공간'으로 기능한다. 『서울』의 서사에서 크리스마스와 댄스로 상징되는 청년들의 문화적 실천은 해방 이후 남한사회가 균질적으로 통합된 민족적 공간으로서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해방과 자유의 이름 아래 개인과 집단의 문화적 이동성을 강화시킨 다른 공간들이 창출된 시기였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처럼 이광수의 『서울』에는 해방 이후 미군정 체제를 거쳐 오면서 남한사회에 급속하게 유입된 미국식 자본주의에 의해 경제 구조가 재편되고, 그러한 가운데 자본을 소유한 청년 세대들이 소비문화의 주체로서 자기를 재정립한 과정이 서사화되어 있다. 그들은 해방 이후 미군정 체제에 기생해 새롭게 부를 축적한 부모 세대의 자본에 힘입어 남한사회에 유행하고 있는 서양문화, 특히 미국식 문화를 향유하는 데 여념이 없었고, 그를 통해 청년 세대로서 자신들의 문화자본을 획득해갔다. 그것은 서구식 라이프 스타일과 서양문화의 수용을 통한 개인의 교양 함양 및 사회적 관계의 형성으로 이어지기

도 했지만, 자본주의적 질서에 의한 무비판적인 자기 욕망의 탐닉 및 사회적 타락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해방 이후 남한사회에 전파된 미국식 자본주의와 소비문화는 개인의 욕망을 추동하고 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동력으로 작동하면서 청년 세대들을 새로운 자본주의적 인간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본주의적 인간들이 이동했던 무대는 민족적 공간도, 이식된 서양문화를 상징하는 공간도 아닌, 그것들 모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과는 다른 문화 접경지대였던 것이다.

3. 동아시아 연대 공간의 모색과 환대의 감각

이광수의『서울』의 서사에서 이동하는 청년들은 미국의 자본 유입에 따라 급속하게 남한사회에 전파된 미국식 문화를 소비하는 주체로서만 위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해방과 단정 수립에 이은 분단 체제의 성립 과정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강고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내외의 정세에 대해 청년 지식인들로서 나름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다만 해방 직후 탈식민화의 기획과 민족국가 수립의 실천들이 중첩되면서 이념과 노선을 달리하는 다양한 청년/단체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상황에 대해 다채로운 입장을 피력하면서 해방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했던 것과 달리 1948년 단독정부 수립 및 48년 체제가 형성되어 가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는 '민족'에 주박(呪縛)된 측면이 강했다. 즉, 새로운 시대의 선도자이자 민족국가 건설의 주체로 자임했던 청년 세대들이 해방 직후에는 다성적인 목소리를 들려줬다면, 상대적으로 단정 수립 이후에는 단성적인 목소리로 발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그들의 목소리는 해방 직후 군정 체제에 의한 신탁통치로 인해 해방 조선의 독립이 달성되지 못했고, 이후 1948년 남북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한반도가 분단 체제로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통일이 요원하다는 당시의 정세 판단에 기초한 것이었다. 즉, 해방과 군정, 단정과 분단으로 연쇄하는 체제 변동에 의해 아직 민족 해방과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청년 지식인으로서의 비

판적인 목소리를 발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서병달의 집에 열린 청년들의 두 번째 회동이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서병달의 초대에 의해 그의 집에서 청년들의 두 번째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모임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지식인 청년들의 사교를 위한 자리였다. 서병달은 상하이에서 돌아온 뒤 과거 일본인 광업가의 집이었다가 미군 고급장교의 숙사였던 양옥을 사들여 재력뿐만 아니라 정계에도 힘을 미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또한, 그는 사회 각 방면의 유력 인사들과 교분을 쌓는 한편, 중국 무역상이 한국 정부에 교섭하는 데 관여하는 동시에 중국대사관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가 하면 몇몇 대학에서 중국문학과 영어회화를 가르치면서도 보수를 받지 않아 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자였다. 이처럼 세간에 이름을 널리 떨치고 있던 유력자였지만 정작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정보국 장교인 김덕상으로부터 모스크바의 밀사가 아니면 중공군의 선전 공작대원으로 의심을 받고 있었으나 그는 그러한 의혹 또한 세간의 인물평으로 무마시키고 있었다. 사실 서병달은 정보국 장교가 의심하고 있었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남한사회에 침투한 스파이로, 선동과 교란의 임무를 부여받았던 자였다. 명망 있던 양반가의 자손이자 과거 식민지시기 민족운동의 지사였던 조부와 부친의 영향으로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지니고 있던 그는 중국 쑤저우(蘇州)의 구가인 외가의 영향으로 조선인이지만 중국 국민당 휘하에서 성장했는데, 국민당의 부패상을 목도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고 공산당에 가담한 자였다. 그러한 그가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남한사회로 이동하여 "자기의 본신을 터럭 끝만큼도 내어 놓지 않고 민족주의자, 애국자의 가면을 꼭꼭 쓰고, 마치 점잖은 유생이나 크리스찬이나 기껏해야 미국식 교육을 받는 신사로 행세"하면서 "다소 사회주의 색체를 가진 자유주의자, 소위 중간파보다 조금 우편에 있는 자"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20] 이 서병달의 주최로 열린 청년들의 두 번째 회동은 기실 공산주의자로서 자신을 감추고 남한사

20) 李光洙, 앞의 책, 182면.

회의 청년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첫 번째 모임이 문화적 향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에 비해 두 번째 모임은 정치적 현실에 대한 청년들의 토론의 장으로 기능한다. 이는 무엇보다 서병달 집에 함께 기거하고 있던 중국인 여성 호소검이 남한사회의 청년들을 '동지'로 호명하는 한편, 그들을 대상으로 아시아의 연대 필요성을 역설하였기 때문이었다. 호소검은 중국 장쑤성(江蘇省) 출신으로 그녀의 아버지는 국민당 간부였는데, '중공의 난'을 피해 서울로 이주하여 정착한 인물이었다. 이 중공의 난은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전개된 중국 공산당의 이른바 '해방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46년 6월 공산당과 국민당의 군사 충돌이 전국 각지로 확대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947년 3월에는 국민당 군대가 공산당의 본거지였던 옌안(延安)을 점령하기도 했지만, 1948년 초부터 공산당 군대의 반격으로 인해 전세가 역전되었고, 결국 1949년 4월 공산당 군대가 중국 본토를 제압하자 5월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옮겨갔으며,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 선포되었다.[21] 국민당에 세력 기반을 두고 있던 호소검 일가가 피난길에 오른 뒤 그녀가 서울에 정착하고 있었던 것은 공산당에 의한 생명에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남한사회의 청년들에게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호소검이 서병달과 공산당에 소속되어 동지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그녀 또한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남한사회에 잠입한 스파이였다고 할 수 있다.

어찌되었든, 전화(戰禍)를 피해 서울에 이주한 호소검은 동정과 연민의 대상을 넘어 연대와 환대의 대상으로 위치한다. 그녀는 남한사회의 청년들에게 중국과 한국이 과거 문화와 문명을 같이했고, 이후 운명과 사업을 함께할 동지이자 형제라고 말하는 한편, 베트남·말레이시아·버마·인도네시아·팔레스타인 등 아시아의 국가들이 둘로 나뉘어 민족상잔의 도탄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서양 제국주의 세력 때문이라고 암시하면서 아시아의 해방을 위해서는 아시아인들 사이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시

21) 구보 도루, 강진아 역, 『중국근현대사 4: 사회주의를 향한 도전, 1945-1971』, 삼천리, 2013, 37-58면.

아의 해방이 없는 민족의 해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녀는 아시아의 해방을 위해 아시아의 청년들이 각성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연대해야만 "아시아를 해방하고 나아가서 인류의 평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피력한다. 그리고 남한사회의 청년들이 중국인 여성인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낸다.[22] 민족의 해방과 아시아의 해방을 등치시키는 한편, 아시아 청년들의 연대를 부르짖고 있는 이 중국인 여성의 목소리는 물론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 침투해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위장술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온전한 독립과 통일을 이루지 못한 남한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녀의 연설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추는 거울로서 기능하면서 남다른 울림을 갖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는 호서검에 이어 한국 측 대표 격으로 연설한 이음전에 대한 반응에서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호서검에 이어 갑작스럽게 서병달에 의해 지목된 이음전은 다소 당황하기도 하였지만, 호소검에 응답하기라도 하듯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피력한다. 그녀는 인류의 역사가 민족과 계급 사이에서 서로 죽고 죽이기를 반복해 왔다면서 현재 1, 2차 세계대전에 이어 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계정세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다. 그러면서 적대감이 아닌 '사랑'으로 화합하고 연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사 이래 아시아와 한국은 사랑의 정신을 잃지 않았다면서 다시금 '사랑의 깃발' 아래 아시아가 연대하고 세계평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그 중심에 서울을 위치시키는 한편, 연대의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들 청년들임을 명확히 한다.

> 나는 사랑의 깃발 밑으로 섬김의 무기를 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고향은 아시아입니다. 석가 세존께서 자비를 설하시고 공자께서 인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길을 보이셨으니 사랑의 고향은 아시아입니다. 중국의 역사는 호 소검 언니께서 잘 아시려니와 우리 나라 역사는 홍익인간의 원리로 나라를 세우셨고, 신라는 광명 이세로, 고려는 독경 산보로, 한양 조선은 인의로 나라를 세우셨으니, 말은 같지 아니하여도 뜻은 다 같이 이 땅 위에

22) 李光洙, 앞의 책, 156면.

> 서로 사랑하는 나라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지난 사천 년에 여러 번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사랑의 나라 운동이 아직 큰 성과를 짓지 못하였읍니다마는 우리 민족의 본심은 이 정신으로 수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이 이 정신을 펼 날을 마련하시고 우리 민족을 오늘날까지 길러 내시고 훈련해 주신 것 아니겠읍니까. 우리 동포 여러분은 가만히 눈 감고 속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남을 미워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은 우리 본심이 아니요, 폭력과 모략으로 남을 해치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들고 일어날 날이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스크바도 아니요, 서울의 깃발 밑에 일어나 인류 구제의 길을 떠날 때라고 믿습니다.[23]

이음전이 온건한 민족주의자로 알려진 명망 있는 지식인 아버지 이한종의 영향을 받아 위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지만, 사랑을 축으로 아시아의 연대와 세계 평화를 말하는 그녀의 웅변에 모임에 참석했던 청년들은 감격해마지 않는다. 이처럼 이 두 번째 청년들의 모임은 중국인 여성 호소검과 한국인 여성 이음전의 연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설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시아의 연대와 민족의 해방에 있다는 점에서 이광수의 잔영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의 서술자는 남한사회의 정치적 현실을 민족주의적 독재주의, 공산주의적 독재주의, 미국식 독재주의로 일갈하면서 사대주의와 국수주의의 병폐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이광수의 당대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직후부터 좌우익의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한반도가 분단되고, 민족이 서로에게 총과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거부감이 여기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자면, 다시금 아시아의 해방과 연대, 그리고 그 중심에 서울을 위치시키는 것에 시선이 간다. 호소검이 공산주의 이념을 축으로 한 아시아의 연대를 말하고 있는 것—물론 이는 그녀의 발화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과 달리 이음전이 사랑을 축으로 한 아

23) 같은 책, 159-160면.

시아의 연대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아시아주의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광수가 아시아의 해방과 그를 위한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서울』 서사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오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도산 안창호에 깊이 공명해 아시아의 해방과 연대에 대해 강조했던 이광수가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기 제국 일본의 전쟁 수행의 논리로서 쑨원(孫文)의 (대)아시아주의를 소환했던 것 역시 익히 알려진 바이다. 이는 서양/동양, 제국/식민지, 지배/피지배의 이분법적 관계망 속에서 아시아를 하나의 지역(region) 단위로 사유하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과거 친일적 행적으로 인해 반민특위에 회부되었던 이광수가 다시금 그러한 친일의 내적 논리 중 하나인 아시아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1943년 「대동아」에서 "아시아의 제 민족이 하나로 뭉치지 않고서는 영미의 독이빨로부터 자기를 해방하여, 빛나는 아시아인의 아시아를 현현할 수 없는 것"[24]이라면서 제국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제 민족이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결집해야 한다는 논리를 피력했던 것이 어느새 "우리 아시아의 청년들이 깨고 일어나고 합하여서 싸우는 것이—오직 그것만이 아시아를 해방하고 나아가서 인류의 평화를 가져 올 것"[25]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국의 전쟁 수행을 위한 논리가 민족 해방을 위한 논리로 바뀐 것에 대한 간극은 보편으로서의 사랑 속에서 봉합되고 있다.

이처럼 『서울』의 서사는 민족 해방과 아시아의 해방을 등치시키면서 아시아인들의 연대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연대의 첫걸음이 동일한 문화적 토대를 가지고 있고, 유사한 정치적 현실에 놓여 있다고 여겨지는 중국인—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닌—을 받아들이는 환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의 연재가 1950년 초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미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을 환대하고 있다는 점은 새삼 주목을 요한다. 중국이 이미 공산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소검으로 대표되는 중국인 여성을 환대하는 것은 그녀를 '난민'으로 위치시

24) 香山光郎, 「大東亞」, 『綠旗』, 1943.12, 81면.
25) 李光洙, 앞의 책, 156면.

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 와중에 전화를 피해 남한사회로 피난 온 중국인은 '사랑'으로 환대해야 할 난민으로 위치한다. 해방과 단정 수립에 이은 분단 체제의 성립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민족국가의 경계를 강화하고 국민 됨의 자격을 강화하고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서울』의 서사는 난민에 대한 환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호소검을 난민으로 호명하고 그녀를 환대하는 것은 보편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자유주의 국가로서 남한의 위상을 공고히하는 것이었다.[26] 따라서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고하는 것이었고, 결국 민족국가의 공간적 질서를 강화하는 길로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사실 제국 일본의 패전과 과거 식민지 국가/지역의 해방 이후 탈식민-냉전 체제 형성에 조응해 동아시아의 연대의 움직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동아시아 지역의 연대는 식민지 말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인접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지만, 과거 피식민의 역사적 경험과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정치적 아젠다의 공통성을 내세우고 있었다.[27]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남한-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연대의 움직임은 이른바 미국적 헤게모니 하 동아시아 지역 질서가 재편되어가면서 가속화된 현상이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고자 했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 한국에 미군을 주둔·점령하게 하는 한편, 과거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의 국가/지역과의 정치경제적 벨트를 구축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연대의 핵심에는 반공주의라는 이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당시 동아시아 정세를 염두에 뒀을 때, 이광수가 『서울』에서 서사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연대의 중심에 '사랑'이 놓여 있다는 점은 여러모로 흥미롭다. 식민지시기 이광수 문학에서 이미 사랑의 이념이 서사 추동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이광수는 사랑에 대해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정작으로 말하

26) 김혜인, 「난민의 세기, 상상된 아시아—이광수의 『서울』(1950)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4호, 대중서사학회, 2010, 151-154면.
27) 장세진, 「역내 교통의 (불)가능성 혹은 냉전기 아시아 지역 기행」, 『상허학보』 제31집, 상허학회, 2011, 125면.

고 싶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운명이었다는 것, 곧 민족이라는 주체의 자기보존이라는 것이다. 이광수가 만들어놓은 모든 사랑의 서사와 담론들은 오로지 이 지점으로 수렴되고 있다. 사랑의 열정도, 목숨 건 사랑의 이데올로기도, 철저하게 정신화된 사랑과 도덕적 엄숙주의도 결국은 집단 주체의 자기보존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28] 그리하여 사랑의 서사는 공동체의 이상과 전망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계몽의 서사가 되었던 것인데, 『서울』에서도 1948년 분단 체제 성립 이후 아시아의 연대를 통한 조선 민족의 해방을 역설하기 위해 사랑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사랑은, 정치적 이념과 민족의 차이,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연대로서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은 식민지 말 이광수가 불교적 세계관에 경도되어 『법화경』 행자로 자처하면서 종교적 차원의 구원을 말했던 것[29]—그것은 제국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건설이라는 국가적 차원으로 귀결되었지만—과 동궤에 놓여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식민지 말 내선일체 이념을 서사화하고 있는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에서 이광수는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접촉과 교류, 그리고 상호 인식과 이해 나아가 사랑이라는 감정의 교환을 보여주었는데, 무엇보다 "이해보다는 사랑이라네. 진실로 동포라고 생각하는 것 말이네."[30] 라며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다시금 사랑의 이념을 소환한다. 이는 식민지 말 전쟁 수행을 통한 동아 신질서 건설이 완성되면, 제국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 사이의 구별이 사라지고 모두 천황의 적자로서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제국 일본이라는 공동체의 이상과 전망을 제시하는 계몽적 주체로서 이광수는 또다시 사랑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해방 이후 단정 수립과 분단이라는 민족의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는 한편, 해방과 통일을 위

28) 서영채, 『사랑의 문법: 이광수, 염상섭, 이상』, 민음사, 2004, 127면.
29) 정선태, 「어느 법화경 행자의 꿈—일제 말기 춘원 이광수의 글쓰기에 나타난 개인과 국가—」, 『춘원연구학보』 제3호, 춘원연구학회, 2010, 71-94면.
30) 李光洙, 「心相觸れてそ(二)」, 『綠旗』, 1940.4, 99면.

해 나아가는 민족 공동체 수립과 그것을 저해하는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일소하기 위한 아시아의 연대로 확장되었을 때, 민족주의자였던 그가 사랑이라는 보편 이념에 기대어 환대의 윤리를 말하면서 민족을 인간 보편으로 승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사랑은 공동체의 결속과 통합을 위한 핵심 기제였고, 그것은 근대 초기부터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기를 거쳐 해방과 분단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광수의 『서울』은 전 세계적인 냉전 질서와 남북한 분단 체제가 형성되어가고 있었던 1948년 단독정부 수립 이후 국가 주권, 영토적 완결성, 국가 공동체라는 원칙에 의해 민족국가로서 공간성이 강화되어가고 있었던 남한사회(=서울)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연대 공간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동아시아의 연대의 핵심에 난민에 대한 환대를 통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위상 재고와 함께 민족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사랑이 어떤 보편의 이념으로서 제시되어 있었다. 이는 민족을 경계로 공간을 구획하고 공간적 질서를 마련하는 방식과 달리 민족을 최종 심급에 두면서도 그것을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국 일본의 패전에 의한 동아시아 식민지 국가·지역의 해방과 미소를 중심축으로 하는 냉전 체제가 형성되어가던 가운데 그에 조응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는 공간적 질서를 구축해가던 해방 조선의 분단 상황 속에서 이광수는 다시금 아시아의 연대를 통해 민족의 해방과 통일을 꿈꾸면서 자신의 나아가 남한사회의 제한적·폐쇄적 위상을 넘어서고자 했던 것이다.

4. 민족성 회복의 욕망과 중첩되는 공간들

이광수의 『서울』은 1945년 해방에서 1948년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을 거쳐 분단 체제가 성립되어가는 가운데 탈식민화와 미국화의 사회 구조 변동 과정에 조응해 재편된 남한사회의 축도로서 서울이라는 공간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곳은 과거 식민의 체험과 기억이 각인된 공간이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탈식민화의 기획과 실천들이 수행되는 공간이다. 또한, 미

군정 체제하 미국식 자본주의의 침투에 의한 소비문화가 유행하는 곳으로서, 개인의 욕망이 발현되고 사회적 향락이 만연한 공간이다. 그리하여 정치경제적 혼돈과 이질적인 문화들이 잡거하고 있었던 남한사회의 공간 질서를 재구축하기 위한 주체들의 이동이 다채롭게 분기하고 있었다. 특히 단독정부 수립 및 48년 체제가 구축되어가던 1949년과 1950년의 시점에서 정치적 이념보다는 자본주의적 질서에 기초해 자신의 삶을 영위하던 청년 세대들은 소비와 향락을 탐닉하는 데 여념이 없었지만, 상실되거나 훼손된 민족성 회복의 욕망과 함께 민족 해방을 위한 동아시아 연대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그를 위해 사랑의 이념을 제시하면서 환대의 윤리를 설파하기도 하였다.

연재 중단으로 인해 이후 서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이광수가 남한사회의 공간적 질서를 어떻게 재구축하려고 했던 것인가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연재본 말미에 나타난 강영주의 집에서의 청년들의 모임과 대화를 통해 그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군정 체제기 이래 민간 외교의 차원에서 미군 및 유엔군과 접촉하고 있던 강영주와 양연경은 미국식 문화의 첨단에 놓여 있는 것처럼 세간에 알려져 있는 여성들로 사회적 선망과 동시에 섹슈얼리티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난의 시선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들은 서양 여행 후 귀국하면서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업신여기고 서양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상태에 빠져 남의 것을 흉내 내는 '원숭이 노릇'만을 하고 있음을 한탄한다. 그리하여 우리 것을 찾아 발굴하고 현대화할 필요성을 느낀 그녀들은 한국 음악과 무용을 배우게 되었고, 미국식 문화를 모방하고 있었던 청년 세대들을 불러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앞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의 댄스로 대표되는 미국식 문화를 향락하기에 몰두했던 청년들이 서병달의 저택에 모여 민족의식에 기초한 아시아의 연대 필요성을 부르짖고, 이제 민족성의 자각과 민족문화의 회복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 것이다.

> 우리 집을 보세요. 일본 사람이 지은 집—그도 순 일본집도 못되고 소위 화양절충이라는 트기 집에다가 온돌을 놓고 한국 세간을 놓고 김치 깍두기를 먹고 코오피를 마시고, 도모지 어색하고 불안하단 말이오. 내 것을 잃고 내 집을 잃고 남의 속에서 해매는 집시의 신세란 말이야요.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해도 모두 어

> 째 우리가 영어나 러시아말을 흉내내는 것 같고, 옛날은 한문, 그다음에는 일본말, 그리고 지금에는 영어 아니면 러시아말로 떠듬거리고 사는 것 같단 말이야요.[31]

서울의 거리를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우리의 것이라 할 만한 것을 볼 수 없어 마치 외국에 와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한 강영주는 일본인이 지은 화양절충식 집에서 한국의 주거문화를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온돌을 설치하고, 김치를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 어색하고 불안하다고 토로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가 집시와 다르지 않다면서 자기 상실에의 고통을 말한다. 나아가 해방 이후 남한사회를 휩쓴 좌우익의 대표적인 이념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역시 한국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내비친다. 여기에는 해방에서 군정 체제를 거쳐 단독정부가 수립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서양의, 특히 미국식 제도와 문화가 광범위하게 남한사회의 구조를 재편시킨 원리로 작동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민족성이 상실되고 민족문화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하여 강영주가 민족주의자인 이음전의 아버지 이한종을 거론하면서 '우리를 찾는 심정'에 대해 강조한 것 또한 상실된 민족성을 회복하고, 훼손된 민족문화를 복원해 그것이 갖는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광수의 남한사회의 공간 질서 구축의 지향은 바로 이와 관련되어 있다. 강영주의 입을 빌려 "잃어 버렸던 나라를 찾는 것이 혁명이라면 잃어 버렸던 정신을 찾는 것도 혁명이 아닐까?"[32]라는 말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전의 시점에서 이광수의 어떤 정치적 지향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것은 상실/회복의 이분법적 논리에 기초해 있다. 그리고 그때 상실되었기 때문에 회복해야 할 것은 민족성과 민족문화로 점철된다. 흥미롭게도 근대 초기부터 식민지 말 전향한 '친일 지식인 문학자'였다가 해방 후 반민특위에 회부되었던 이광수는 다시금/여전히 민족(성, 문화)을 내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즉, 식민과 해방, 단정 수립과 분단 체제의 성립 초기 단계를 거쳐 오면서 민족(성, 문화)의

31) 李光洙, 앞의 책, 1963, 197면.
32) 같은 책, 198면.

회복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재구축하려고 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해방 직후의 '반일' 담론이 냉전적 질서 하 분단 체제의 성립 과정 속에서 '민족'과 '반공' 담론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33] 비록 연재 중단으로 『서울』의 서사는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이광수의 전망과 자기 재구축의 욕망이 어떻게 서사화되어갈 것인지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광수가 20세기 초·중반의 체제 변동 과정 속에서 민족을 최종심급에 두고 문학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48년 체제 성립 이후 반공주의 이념의 득세 속에서 민족을 내세우는 것을 통해 반공주의 이념을 서사화한 것이 아니라, 민족 정체성에 대한 복원의 욕망을 서사화하기 위해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34]

그런데 이 글의 관심사는 해방 이후 남한사회의 공간 재편과 이동하는 주체들에 의해 구축된 공간성에 있으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면 이광수의 자기 재구축의 욕망이나 정치적 지향은 달성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근대 이후 제국-식민지 체제기를 거쳐 해방과 단정 수립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조선/해방 조선/남한사회는 하나의 공간적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거나 해체된 뒤 그곳에 새로운 공간적 질서가 마련된 곳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화양절충식 적산가옥에 온돌을 놓고 김치를 먹고 커피를 마시는 문화적 혼종 상태가 민족성을 상실하게 하고, 민족문화를 훼손하게 해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이광수의 인식은 민족성과 민족문화를 고정된 어떤 것으로 상정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쉽게 짐작할 수 있다시피 그것들은 어떤 고유한 것으로서 한민족과 한반도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해방 이후 민족국가 건설의 기치 속에서 그러한 담론이 확산되고 나름의 권위를 얻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민족성과 민족문화는 민족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창안된 것들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

33) 김시덕, 「전후(戰後)와 냉전—이광수와 요시카와 에이지의 침묵과 재기(再起)—」, 『東方文學比較硏究』 제6집, 동방문학비교연구회, 2016, 22면.

34) 김경미, 「해방기 이광수 문학의 기억 서사와 민족 담론의 양상」, 『現代文學理論硏究』 제4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92-93면.

나아가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민족성과 민족문화의 공간을 상정했을 때, 그것이 소여로서 주어진 것이 아닐뿐더러 확고부동한 공간적 질서에 의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식민과 해방, 군정과 단정 등 체제 변동의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공간 위에 다른 공간이 중첩되고, 그러한 중첩이 반복되어 하나의 지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해방 이후 남한사회의 공간적 질서는 마치 팰럼시스트 위의 글자들처럼 공간 지층들이 덧씌워져 구축되어갔던 것이다. 체제의 변동에 의해 구축된 공간은 언제나 재편되기 이전의 공간적 질서나 재편 과정의 공간적 질서의 흔적들을 곳곳에 산포시키게 마련이고, 그런 점에서 자기 모순적이고 분열적인 공간성을 보여준다. 『서울』에서 단정 수립 후 이광수가 다시금 민족성과 민족문화를 내세워 남한의 공간적 질서를 재편하려고 했다고 해서 과거 식민의 기억과 체험이 간직된 식민지의 흔적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해방과 군정 체제를 거쳐 단정 수립의 과정에서 분기한 이동하는 주체들에 의해 구축된 다양하고 이질적인 공간 체험 및 인식, 공간적 질서가 은폐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후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 그리고 전후 체제로 연쇄하는 과정 속에서 분단 체제하 반공국가로서 통합되고 균질화되었던 남한사회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그리고 분열증적이고 모순적인 공간들이 '민족적 공간'이라는 이름 아래 회수되었던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것이 무엇이든 반민족적이라고 여겨졌던 세대·계층·지역·젠더적 주체들에 의해 이동의 과정이 수행된 공간들은 대체로 거부되거나 부인되었으며, 삭제되거나 은폐되었다. 따라서 해방 이후 단정 수립과 분단 체제하 남한사회의 공간적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공간 상상력의 원천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며, 거기에 전 세계적인 냉전 질서와 남북한 분단 체제의 문법이 개입해 들어간 양상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록 상실과 회복의 이분법적 논리 속에서 민족을 구심점으로 구축된 민족적 공간 아래 괄호 쳐졌지만, 그 흔적을 아로새기고 있는 '반민족적 공간들'에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광수의 『서울』에서의 '다른 공간들'이 그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남천, 『1945년 8·15』, 작가들, 2007.
김동리, 『탄생 100주년 기념 김동리 문학전집⑥: 해방(解放)』, 김동리기념사업회·계간문예, 2013.
李光洙, 「서울」, 『李光洙全集 第十九卷』, 三中堂, 1963.
_____, 「心相觸れてそ(二)」, 『綠旗』, 1940.4.
염상섭, 『효풍』, 실천문학사, 1998.
香山光郎, 「大東亞」, 『綠旗』, 1943.12.

구보 도루, 강진아 역, 『중국근현대사 4: 사회주의를 향한 도전, 1945-1971』, 삼천리, 2013.
김경미, 「해방기 이광수 문학의 기억 서사와 민족 담론의 양상」, 『現代文學理論研究』 제4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73-99면.
김시덕, 「전후(戰後)와 냉전—이광수와 요시카와 에이지의 침묵과 재기(再起)—」, 『東方文學比較研究』 제6집, 동방문학비교연구회, 2016, 7-26면.
김예림,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반공 정체성의 위상학—해방-한국전쟁 후(1945-1955) 아시아 심상지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20집, 상허학회, 2007, 311-345면.
_____,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해방기 귀환의 지정학과 귀환자의 정치성」, 『상허학보』 제29집, 상허학회, 2010, 333-376면.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솔출판사, 1999.
_____,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서울대 출판부, 2006.
김혜인, 「난민의 세기, 상상된 아시아—이광수의 『서울』(1950)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4호, 대중서사학회, 2010, 137-160면.
미셸 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서영채, 『사랑의 문법: 이광수, 염상섭, 이상』, 민음사, 2004.
신지연, 「해방기 시에 기입된 횡단의 흔적들」,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2집, 한국근대문학회, 2015, 311-329면.
오태영, 「탈식민-냉전 체제 형성기 지정학적 세계 인식과 조선의 정위—표해운의 『조선지정학개관』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1집,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129-158면.
장세진, 「해방기 공간 상상력의 전이와 '태평양'의 문화정치학」, 『상허학보』 제26집, 상허학회, 2009, 103-149면.
_____, 「역내 교통의 (불)가능성 혹은 냉전기 아시아 지역 기행」, 『상허학보』 제31집, 상허학회, 2011, 123-171면.
정선태, 「어느 법화경 행자의 꿈—일제 말기 춘원 이광수의 글쓰기에 나타난 개인과 국가—」, 『춘원연구학보』 제3호, 춘원연구학회, 2010, 71-94면.
정종현, 「탈식민지 시기(1945-1950) 삼팔선 표상의 지정학적 상상력—해방 후 이태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39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423-460면.

정주아, 「두 개의 국경과 이동(displacement)의 딜레마: 선우휘를 통해 본 월남(越南) 작가의 반공주의」, 『한국현대문학연구』 37집, 한국현대문학회, 2015, 247-281면.
존 어리, 강현수·이희상 역, 『모빌리티』, 아카넷, 2014.
허 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냉전시대(1945-1965) 문화적 경계의 구축과 균열의 동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8.

David Harvey, *Social Justice and the City*,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09.
John Agnew, *Geopolitics: Re-visioning world politics*, Routledge, 2003.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Routledge, 2008.

【Abstract】

Reorganization of Liberation Space and Imagination of Contact/Solidarity
—Focus on Lee, Kwang-Su's *Seoul*—

Oh, Tae-Young*

After liberation, the space of Liberation Chosun/South Korea has been reorganized through the process of moving subject in accordance with the regime change. Lee Kwang-su's Seoul symbolizes the feature of Seoul as a celebration of South Korean society that has been restructured in response to the structural change in society of postcolonialization and Americanization. It is a space marked by the experiences and memories of the colonial past, and is the space where the planning and practice of postcolonization are carried out to overcome them. In addition, as a place where consumption culture is infused by the penetration of American style capitalism under the US military system, personal desire is expressed and social enjoyment is prevalent. Thus, the movement of the subjects in order to reconstruct the spatial order of the South Korean society, where political and economic chaos and heterogeneous cultures were holding, diverged diversely. In particular, the young generations who were living their own lives based on capitalist order, rather than political ideology, were not inclined to indulge in consumption and enjoyment at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a sole government and so-called 48-year system. However, with the desire to recover lost or damaged nationality, it showed the movement of East Asian solidarity for national liberation. And for that, he presented the ideology of love and preached the ethics of hospitality. In this process of liberation, division, war and postwar change, the diverse and heterogeneous spaces of South Korean society were collected and integrated into the national space. There, however, other schizophrenic and contradictory spaces (imagination) were leaving traces like the letters on the palimpsest.

* Assistant Professor, Dharma College, Dongguk University.

Keywords: Liberation, Stratocracy, Division, Sole Goverment, Nation-state, Regime, Space, Movement, contact zones, Solidarity, Postcolonization, Americanization.

접수일: 2018.03.30 ‖ 심사일: 2018.04.11 ‖ 게재확정일: 2018.05.15